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평교포베네틱회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사도 1,1-11

화답송 | 시편 47(46),2-3.6-7.8-9(◎ 6)



(후렴) 환호소리가운데 하느님이오르신 다. 나팔소리가운데 주님이오르신 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한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제2독서 | 에페 1,17-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8,16-20

영성체송 |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성가 | 입당 141 예물준비 241(220)
 영성체 153(152) 파견 137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조정옥 엘리사벳, 고경덕
- 강순기 이레네 평안한 안식을 위해
- 강순기 이레네
- 김경련 율리따
- 강인구
- 정희경 자매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
- 이순자 로사
- 손희종 요셉의 편안한 안식을 빌면서-기일
- 문종란 글라라
- 이만제, 원광남
- 이미자 안나 영혼의 평안을 위하여
- 강순기 이레네 연령을 위하여
- Jeremiah St.Preux

생미사 지향

- 김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 사제 수품 30주년
- 이정주 소화데레사 영육간의 건강
- 5/22-5/24 청년하이킹&성지순례를 위하여
- 김현용 니콜라오 졸업 축하
- 문미나 안젤라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이경재 라파엘의 영육건강을 위하여
- 박근형 가브리엘 졸업 축하 및 개업 번영을 기원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5월 17일	김유화	강호영	김미혜	김미혜	이기원 진서윤	한서희 김수현
5월 24일	정유진	국민준	민재인	민재인	김종선 이영혜	한서희 이예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6년 상반기 영성특강 일정

오늘 산 다미아노 홀에서 영성 특강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이용호 프란치스코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	-----------------------------------

2026년 청년회 하이킹 & 성지순례

5/22(금) - 5/24(주일)(장소: Mount Minsi, Blue Army Shrine)까지 청년회에서 청년들의 신앙심 고취 및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하이킹 & 성지순례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친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KCB 미주 가톨릭 방송 후원 안내**

KCB는 주일 미사와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해튼 성당 바자회와 사랑의 음악회를 매년 촬영 제작하며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선교의 사명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사도직 수행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718-888-9130 / kcbnyorg@gmail.com

5월 성령기도회 찬양미사

일시: 5월 19일(화) 7:00PM,

장소: 산 다미아노홀

문의: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RISE: 루아 성령 피정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루아(Ruah)는 기도와 묵상, 나눔을 통해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충실히 따르는 삶으로 초대하는 성령 피정을 마련합니다.

일시: 7월 3일(금) - 7월 5일(주일)

장소: 뉴저지 뉴튼 성 바오로 수도원

(St. Paul's Abbey)

대상: 25세 이상 성인(영어 사용 참가자)

참가비: \$250

신청기간: 5월 1일-6월 1일

문의: ruahcatholic25@gmail.com

오늘의 말씀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성령강림대축일: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강림대축일(5/24)에 성령카드 뽑기가 있습니다. 필요한 은사와 열매를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칠은(七恩)> (이사 11,2-3)

- 개인과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성령이 베푸는 7가지 은혜

- ① 슬기(지혜): 구원에 필요한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서 찾고 맛들이게 하는 은혜
- ② 통달(깨달음): 하느님의 진리를 잘 알아 듣고 이해하는 은혜
- ③ 의견: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은혜
- ④ 지식: 성경과 교리의 의미를 잘 이해 하는 은혜
- ⑤ 굳셈(용기): 신앙생활의 유혹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은혜
- ⑥ 효경: 하느님을 참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따르는 은혜
- ⑦ 두려움(경외):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은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 5,22-23)

- ① 사랑 ② 기쁨 ③ 평화 ④ 인내 ⑤ 호의
- ⑥ 선의 ⑦ 성실 ⑧ 온유 ⑨ 절제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이경도 가롤로 (1780-1802)



한양의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이경도 가롤로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교리를 배웠다. 그는 학문에 재능이 있어 교회 서적 연구에 몰두했다. 어릴 적 병을 앓아 곱사등이가 되었으나, 훌륭한 성품과 깊은 신앙심으로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였다.

1793년 부친상 당시 지혜를 발휘해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장례를 치렀고,

누이가 동정 부부로 혼인하는 것을 돕기도 했다. 또한 동료들과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함께 교리를 익히며 안팎으로 신앙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체포된 이 가롤로는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처형 전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천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음 앞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결국 1802년 1월 29일, 서소문 밖에서 22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82, 가해, 2026. 05. 17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I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r@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안녕이라는 이름의 은총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 | 상계동성당 부주임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만남과 이별은 동그라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별하는 사람이 있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오는 사람이 있듯이, 만남과 이별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똑같이 “안녕!”이라고 인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승천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네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온 세상에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분부하신 후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안녕히 가세요.” 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이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과 함께하시며, 제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안녕!’은 단지 작별의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여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이면서 동시에 “안녕하세요!”인 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습니다. 더 이상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요한 8,31)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 안에 머무르게 되었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함께 걸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십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작은 인사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가 늘 참된 안녕 속에 머무르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림 특상

남겨진 우리들 | 따로이던 우리는 하나됨을 꿈꾸었고, 함께였던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말을 믿어 망부석이 되었지만, 내 마음속의 비상구를 뚫기까지 가야 할지 서성일 뿐입니다. 이 무거움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사슴처럼 경중경중 기쁨으로 봄노는 꿈, 그러나 지금 우리의 좌표는 그 전환의 교차로에 머물러 있나 봅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